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YahooFinance: 미 부채 38조 불 돌파...팬데믹 기간 빼고도 최근 1조 증가
- WSJ: 섀다운 상황인데 연준은 민간 일자리 데이터 접근 못해
- CNBC: 미 경제 '양극화 현상' 나타난다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'물가 CPI 상승해도 금리 인하와 증시 상승 지속될 듯'

[트럼프 행정부]

- WSJ: 트럼프 행정부, 양자 컴퓨팅 지분 투자 논의 중

[무역전쟁]

- WSJ: 중국, 미국과의 기술 갈등 확대한다

[오일]

- WSJ: 유가 급등...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로

[인공지능]

- YahooFinance: AI, 미 경기 침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
- WSJ: 'AI 근로자들, 주당 100시간씩 일한다'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아마존, 배송 장소 찾도록 돕는 AR 안경 테스트
- WSJ: Macy's, 빠른 배송 위해 창고 로봇 도입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US hits \$38 trillion in debt, after the fastest accumulation of \$1 trillion outside of the pandemic

미 부채 38조 불 돌파... 팬데믹 기간 빼고도 최근 1조 증가

- 연방정부 섀다운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미 부채가 어제 수요일 현재 38억 달러를 돌파했다.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.
- 또한 연방 부채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1조 달러 규모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. 올해 8월에는 전체 부채가 37달러를 경신했다. 이후 1조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
- 수요일 발표된 38조 달러라는 수치는 연방 부채를 확인하는 재무부의 가장 최근 수치다.
-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의 Kent Smetters는 “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국가 구매력이 떨어지게 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WSJ: Fed Lost Access to Private Jobs Data Ahead of Government Shutdown

셧다운 상황인데 연준은 민간 일자리 데이터 접근 못해

- 연준의 이사관 일자리 관련 통계 경위를 발표한 이후에 미 급여 관련 기관인 ADP가 연준에 공급하는 주간 일자리 통계 제공을 중단했다.
- 가뜰이나 연준이 공식 일자리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.
- ADP는 지난 2018년 이래 계속해서 미 민간 일자리의 20%를 바탕으로 고용 상황과 소득 데이터를 연준에 제공해 왔다.
- 그런데 지난 8월에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가 연준이 오랫동안 ADP 자료를 사용해왔다는 발언이 ADP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.

WSJ 기사

CNBC: Here's where the economy is starting to show 'K-shaped' bifurcation

미 경제 '양극화 현상' 나타난다...이번주 금 CPI는 발표

- 미국인들의 소비가 점차 나누어져 부유층은 구매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지출을 줄이고 있다.
- 특히 식품과 자동차, 항공기 이용 등의 부문에 이른바 'K-shaped' 이라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.
- 연방 노동부는 당초 이번주 금요일 소비자 물가지수(CPI)를 발표할 예정이었다. 현재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 지표들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.
-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연관된 물가연동조정(COLA) 산정 때문에 이번주 금요일 CPI 발표만은 허용될 예정이다.

CNBC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Hotter CPI Unlikely to Deter Rate Cuts, S&P 500 Rally — For Now

'물가 CPI 상승해도 금리 인하와 증시 상승 지속될 듯'

- 이번주 금요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높게 나와도 금융 투자자들은 이에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왜냐하면 현재 금융 시장 분위기는 연준의 다음주 금리 인하를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.
- JP 모건측은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S&P 500이 상승할 가능성을 65%로 보고 있다.
- 그러나 Andrew Tyler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CPI 지표가 예상대로 또는 둔화된 지수가 나오게 되면 증시는 상승하겠지만 물가 수치가 높을 경우 S&P 500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JPMorgan's CPI-Day S&P 500 Scenarios

Firm's trading desk maps out probabilities for US stock market

September Core CPI MoM Reading	Probability	S&P 500 reaction
Below 0.25%	5%	Gains 1% – 1.5%
Between 0.25% - 0.30%	25%	Gains 0.75% – 1.25%
Between 0.30% - 0.35%	35%	Flat to Gains 0.5%
Between 0.35% - 0.40%	30%	Loses 0.5% – 1.25%
Above 0.40%	5%	Loses 1.5% - 2.25%

Source: JPMorgan Trading Desk

Note: S&P 500 reaction is the one-day implied move for the index

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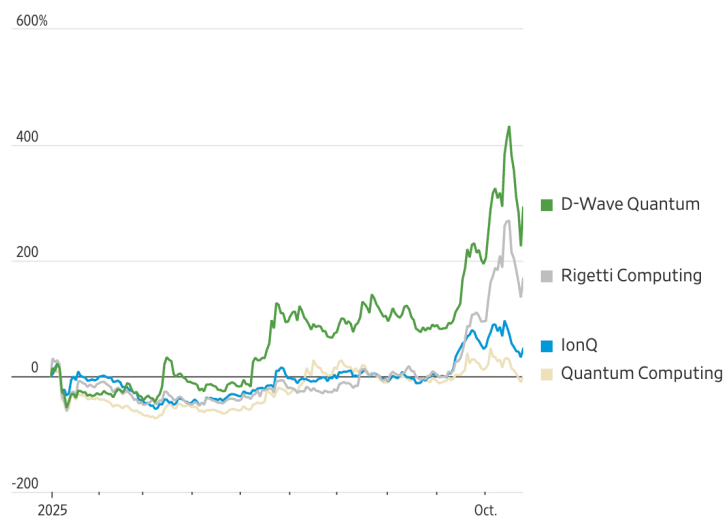
[트럼프 행정부]

WSJ: Trump Administration in Talks to Take Equity Stakes in Quantum-Computing Firms

트럼프 행정부, 양자 컴퓨팅 지분 투자 논의 중

- IonQ, Rigetti Computing, D-Wave Quantum 등의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대신에 정부의 지원금 지원을 협상중인 상황이다.
- 연방정부는 인텔로부터 10%의 지원을 받은 이후로 기업들에게 공적자금(세금)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들의 주식 지분을 받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.
- 이번 협의와 관련 회사당 최소 1천만달러의 공적자금이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컴퓨팅 지원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.

Share-price performance of quantum-computing companies



Source: FactSet

WSJ 기사

[무역 전쟁]

WSJ: China Gears Up for More Tech Confrontation With U.S. 중국, 미국과의 기술 갈등 확대한다

- 중국의 최근 5개년 개발 계획에 따르면 미국과의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적인 자립 목표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다.
- 이와 관련 앞으로 중국은 수출 주도의 성장을 줄이고 대신 내수를 확대하면서 미국의 의존성을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.
- 이번 공산당의 전략은 1) 기술 투자 확대 2) 첨단 제조 확대 3) 지속적인 정부주도의 산업 정책 확대로 정리된다.

WSJ 기사

[오일]

WSJ: Oil Prices Jump on Russia Sanctions 유가 급등...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로

- 미국이 러시아 최대 규모 석유 회사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.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공급이 위협을 받은 것이다.
- 브렌트유는 배럴당 66달러에 근접하며 5% 이상 급등했고,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했다.
-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 목적으로 나온 것인데,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관해 “이러한 제재가 러시아산 원유 생산 및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”고 전했다.
-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을 대폭 줄일 경우,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의향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.



WSJ 기사

[인공지능]

YahooFinance: AI is keeping the US economy out of a recession AI, 미국 경제 경기 침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

- BNP Pariba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James Egelhof는 “AI는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았다”고 전했다.
- 또한,뱅크오브아메리카 리서치는 AI 관련 설비투자 및 지출이 2분기 GDP 성장률을 1.3%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
- AI 기반 투자 뿐만 아니라, 주가가 급등하며 기업 신뢰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끊임없이 채용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.
- 또한,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기업 지출을 억제하지만, AI 인프라는 부채가 아닌 주식 가치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펼치더라도 투자가 둔화하지 않게 된다.
- 이에 덧붙여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알파벳, 아마존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S&P500 자본지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연간 성장률이 75%에 달한다고 추정한다.



YahooFinance 기사

WSJ: AI Workers Are Putting In 100-Hour Workweeks to Win the New Tech Arms Race

‘AI 근로자들, 주당 100시간씩 일한다’

-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메타, Anthropic, Open AI를 포함한 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AI 연구자와 임원들이 주당 80~100시간씩 일하고 있다.
- Anthropic의 연구원 Batson은 “우리는 20년치 과학적 진보를 2년 만에 가속화할 것”이라고 전했으며, AI 시스템의 발전은 몇 달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.
- 또한, 구글의 저명한 연구원 Madhavi Sewak은 “모든 연구원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으며, 이를 멈출 수 있는 지점은 없다”고 전했다.
- 특히, 새로운 모델이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 연구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의미하는 “9-9-6” 근무 일정 대신, 자정부터 자정까지 24시간 근무하고 주말에는 두 시간 휴식하는 근무 형태인 “0-0-2” 근무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.
- 이에 관련해 많은 근로자들은 “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게 되었지만, 시간이 날 때면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쫓는다”고 전했다.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**Bloomberg: Amazon Tests AR Glasses to Help Drivers Find Right Delivery Spot****아마존, 배송 장소 찾도록 돕는 AR 안경 테스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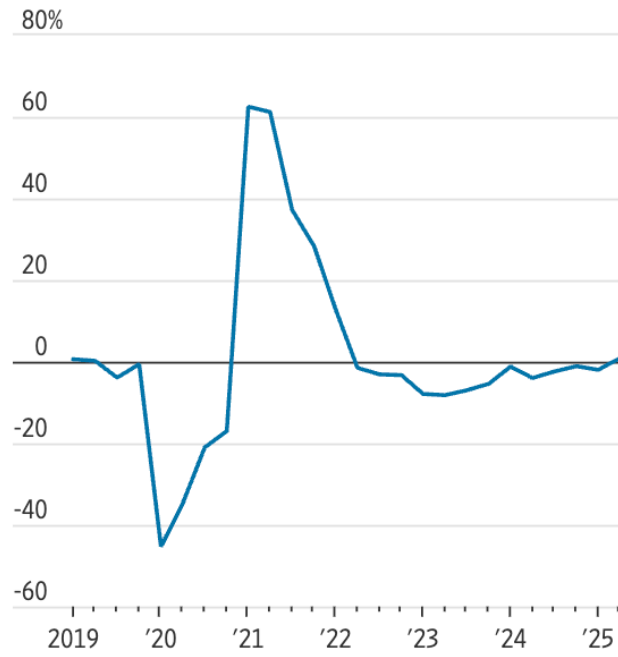
- 아마존이 배송 담당 운전자가 배송 장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AR 안경을 테스트하고 있다.
- 현재 북미의 배송 담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경을 시험 사용하고 있으며, 출시 이전에 기술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.
- 이 AR 안경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배송 운전자의 주차 단계부터 배송 완료 단계까지 단계별로 안내를 제공한다.
-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 단지 등과 같이 출입구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운전자는 종종 길을 잃는데, 이 안경을 통해 더욱 쉽게 길을 찾아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것이다.
- 아마존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떨어진 패키지를 감지하고, 마당에 개가 있는지 탐색하고, 집 주소와 패키지 배송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알리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Macy's Employs Warehouse Robots to Speed Up Deliveries
Macy's, 빠른 배송 위해 창고 로봇 도입

- Macy's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6억 4,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 창고에 창고 로봇을 도입했다. 이 로봇은 온라인 주문에 맞게 매장에 재고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.
- 공급망 담당 수석 부사장 Sean Barbour는 이 창고에서는 평균 하루 이내에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는데, 이전에는 1.5일에서 2일 정도 걸렸다.
- 또한, 창고 로봇은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여 고객들이 여러 품목을 주문할 경우, 한번에 모든 품목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현재 이 시설은 Macy's의 온라인 주문과 매장 재고 보충을 처리하고 있는데, 향후 2년 내에는 Macy's의 자회사인 Bloomingdale's와 Bluemercury 브랜드에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.

Macy's Inc. comparable owned sales, change from a year earlier



Source: Macy's

WSJ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